



한국금융공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Financial Engineering



KFMA 한국재무관리학회  
Korean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한국금융산업학회  
KOREAN FINANCIAL INDUSTRY ACADEMIC ASSOCIATION

# 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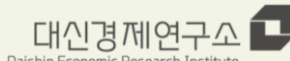
「 금융투자업계의 ESG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2024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 ~ 5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F 루비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후원



# Invitation

유럽연합(EU)은 2021년 4월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논란은 있지만 2024년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제시하였다. 정부도 글로벌 ESG 공시규율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하고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재단도 ESG 공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하였다. ISSB는 2023년 6월 기존의 지속가능성 관련 프레임워크인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위원회(SASB)와 기후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TCFD)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위한 두 가지 주요 기준인 S1(일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과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KASB) 산하 한국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KSSB)도 2023년 4월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ESG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Sustainable growth)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ESG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의무 공시는 금융투자업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금융투자업계는 ESG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ESG 전략을 구축하고, 이를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ESG 공동 심포지엄의 자리가 금융투자업계의 ESG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ESG 심포지엄을 후원해주신 한국금융투자협회, 대신경제연구소, NH투자증권,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해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김현정 의원, 한국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문성주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강형구 

한국금융산학학회 회장 백재승 

## 개 회 식

14:00~14:20

- 개회사 문 성 주 (경상국립대학교,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환영사 백 재 승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금융산학학회 회장)  
축 사 국회의원 강 준 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 현 정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서 유 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 주 제 발 표

14:20~16:00

- 사 회 문 성 주 (경상국립대학교,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발표 1 **ESG 공시의 해외 동향** / 송 민 경 (한국ESG기준원)  
발표 2 **ESG 공시의 국내 동향** / 안 상 희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  
발표 3 **ESG 공시에서 TCFD와 탄소크레딧 레이팅 플랫폼**  
/ 김 태 선 (NAMU EnR 대표)  
발표 4 **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 최 흥 석 (NH투자증권 ESG 추진부장)

## 토 론 준 비

16:00~16:10

## 종 합 토 론

16:10~17:00

- 좌 장 강 형 구(한양대학교,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토론자 박 성 호(삼정회계법인 상무), 이 지 윤(연세대학교 교수)  
(가나다 순) 송 수 영(중앙대학교 교수), 홍 창 수(NICE P&I 이사)

## 폐 회 식

17:00~17:05

- 폐회사 백 재 승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금융산학학회 회장)

## 주제발표 첨부파일 순서

---

▶ **ESG 공시의 해외 동향**

송민경 | 한국ESG기준원

▶ **ESG 공시의 국내 동향**

안상희 | 대신경제연구소 지속가능센터장

▶ **ESG 공시에서 TCFD와 탄소크레딧 레이팅 플랫폼**

김태선 | NAMU EnR 대표

▶ **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최홍석 | NH투자증권 ESG 추진부장

---



# ESG 공시 규제의 해외 동향 - EU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본부 (발표: 송민경)

-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14:20~14:45
- 장 소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F 루비홀

## 목 차

- I. 도입
- II. EU의 ESG 공시 규제 (1): 공통
- III. EU의 ESG 공시 규제 (2): 서비스 제공자
- IV. EU의 ESG 공시 규제 (3): 금융기관
- V. EU의 ESG 공시 규제 (4): 기업
- VI.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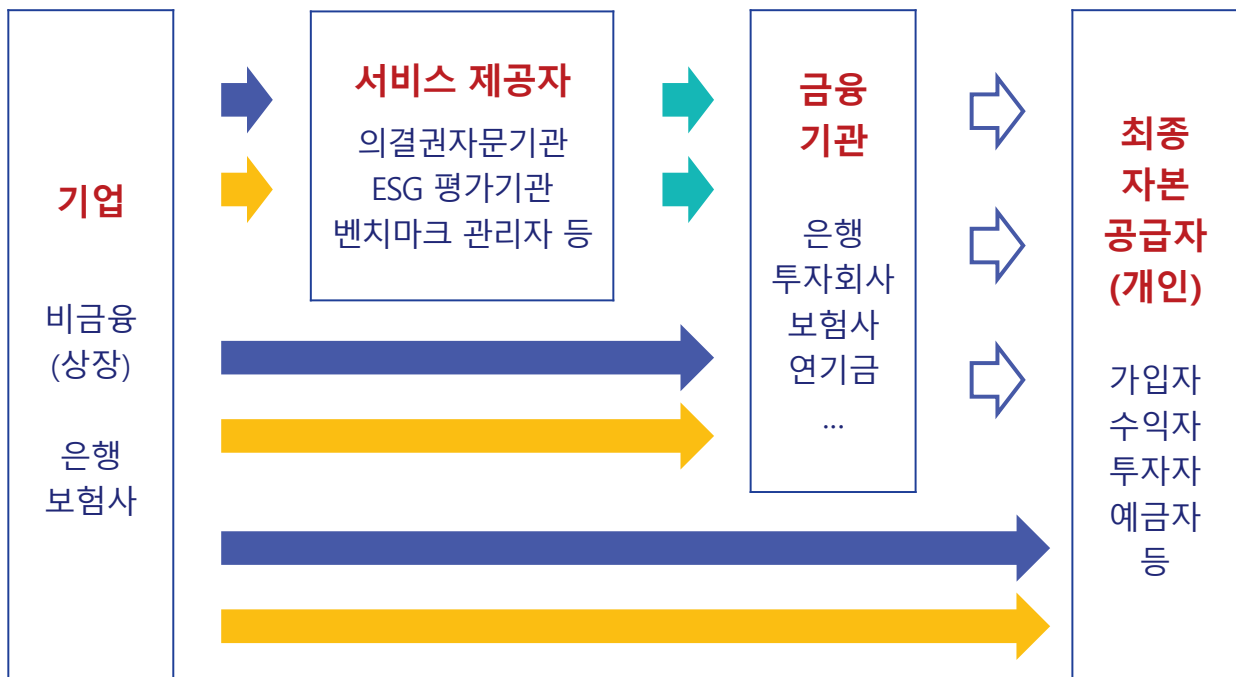


# I. 도입



## I. 도입

### ❖ ESG 정보의 흐름



## ❖ ESG 관련 공시에 관한 EU 규제 동향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사지침·법 (Audit Directive, Audit Regulation) (2014)</li><li>▪ 주주권지침 SRD (Shareholder Right Directive) II (2017)</li><li>▪ 녹색분류체계법 TR (Taxonomy Regulation) (2020)</li></ul>
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결권 자문기관 규제 (in SRD II 2017)</li><li>▪ 기후벤치마크법 CBMR (Climate Benchmark Regulation) (2019)</li><li>▪ ESG 평가 규제법(안) ESGR (2024)</li></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 IORP II (2016)</li><li>▪ 지속가능금융공시지침 SFDR (2019)</li><li>▪ 금융사 위험관리법/지침 (CRD5 6, CRR2 3, IFD, IFR, Solvency II DR) 등</li></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 (2022)</li><li>▪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CSDDD (2024)</li></ul>

## II. EU의 ESG 공시 규제 (1): 공통

## II. EU의 ESG 공시 규제 (1): 공통

### ❖ 감사 지침·규정 (2014)

- 법정감사지침 Statutory Audits Directive (2006)
- 회계지침 Accounting Directive (2013)
- 감사지침 Audit Directive (2014), 감사법 Audit Regulation (2014)

#### ▪ 법정감사지침 (2006)

- 주식회사의 경우 **주총에 외부감사인 승인권 부여**

#### ▪ 감사 지침·규정 (2014)

- 감사인 의무 교체
- 감사인의 일정 비감사서비스 제공 금지
-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내부통제, 위험관리, 감사인 감시, 독립성 평가 등)

회계 투명성 증진, ESG 공시 기반 마련

## II. EU의 ESG 공시 규제 (1): 공통

### ❖ 공통 ESG: 개정 주주권지침 (2017)

- EU 회사법 및 지배구조에 관한 실행계획 (2003, 2012)
- **SRD (Shareholder Right Directive) I (2007), SRD II (2017)**

#### ▪ SRD I (2007)

- 주총에 제출할 전체 정보의 사전 제공, 회사의 주총 결과 상세 공시 등

#### ▪ SRD II (2017)

- "투명성 증진", "참여하는 주주"
- 주요 내용: ①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의결권 행사, ESG 점검, 이해상충 관리 등 포함) 정책 및 이행, 투자전략 및 수탁사와의 위탁계약 주요사항 등 공시**, ② **이사 보수 정책**, 보수보고서에 대한 주주권 확대 등

투자자에게 ESG 개선 등 관련 활동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  
주주 참여, 장기주의, 주주·기업간 대화 및 ESG 개선을 촉진

## Ⅲ. EU의 ESG 공시 규제 (2): 서비스 제공자

### Ⅲ. EU의 ESG 공시 규제 (2): 서비스 제공자

#### ❖ 의결권 자문기관: 개정 주주권지침 (2017)

- 자문기관 그룹, 자율규제 (“Best Practice Principles”) 시행 (2014~)
- **의결권 자문기관 규제 관련 내용을 SRD II (2017)에 반영**

#### ▪ SRD II (2017)

- 의결권 자문기관의 **기존 자율규제를 그대로 반영한 공시 의무를 명시**
- (1) 의결권 자문기관이 적용하는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 아닌 경우 명확하고 합리적인 사유를 공시
- (2) 다음 사항을 공시: ① 방법론의 핵심 특성, ② 정보 출처, ③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절차 및 담당직원의 적격성**, ④ 해당 국가 시장·규제의 특수성 고려 여부 및 방법, ⑤ 시장별 의결권 행사 정책의 핵심 특성, ⑥ 회사와의 소통 여부 및 정도와 성격, ⑦ **이해상충 방지·관리 정책**

**의결권 자문업무의 전문성·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  
기관투자자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최종 투자자를 보호**

### III. EU의 ESG 공시 규제 (2): 서비스 제공자

#### ❖ 벤치마크 설정자: 환경벤치마크법 (2019)

- 벤치마크법 BMR (Benchmark Regulation) (2016)
- **환경벤치마크법 CBMR (Climate Benchmark Regulation) (2019)**
- 3개의 위임법 (DR: Delegated Regulations) (2020)

#### ▪ BMR (2016)

- 벤치마크 설정자, 자료제공자, 이용자 대상 규제
- **설정자: 방법론·자료제공자 행위기준 공개, 자료검증, 등록, 이해상충 방지 등**

#### ▪ CBMR (2019)

- 2개의 신규 환경벤치마크 도입, 모든 벤치마크의 ESG 관련 사항 공개
- **ESG 목적 추구 여부, ESG 요인 고려 방법론, 특정 ESG 지표 등 공시 (DR 2020)**

ESG 관련 벤치마크 신뢰도 제고, 효과적인 ESG 자금 흐름 유도

### III. EU의 ESG 공시 규제 (2): 서비스 제공자

#### ❖ ESG 평가활동: ESG 평가활동 규제법(안) (2024)

- **ESG 평가 규제법 ESGR (ESG Ratings Regulation) (2024)**

#### ▪ ESGR (2014)

- 정의, 적용 대상, 비례성 원칙
- 지배구조(부서 분리, 담당자 전문성 등), 이해상충 관리, 가격정책 등 규정
- 공시 혹은 제공: ① (E, S, G 각 요인별) 평가방법론 개요(가정, 출처, 한계, 가중치, 과학적 근거 활용 여부 등 관련), ② E, S, G 평가 시 관련 국제기준 고려 여부, ③ 이중 중요성(ESG 위험, 기업활동의 외부 영향) 채택 여부, ④ 소유구조, ⑤ 평가 토픽 설명, ⑥ 이해상충 위험 및 조치사항 등
- **ESG 금융상품 판매 등 위해 내부 ESG 평가 시행하는 금융사도 동일 공시의무**

ESG 생태계, ESG 정보 흐름의 기초 인프라 역할  
투자전략, 위험관리, 공시 의무 이행 등 의사결정·활동 지원

## IV. EU의 ESG 공시 규제 (3): 금융기관

### IV. EU의 ESG 공시 규제 (3): 금융기관

#### ❖ 퇴직연금 ESG: 퇴직연금운용기관지침[연금지침] (2016)

- IORP (Directive on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 (2003)
- **IORP II (2016)**

#### ▪ IORP II (2016)

-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 공제회 등
- 지배구조, 건전성 감독 장 추가, 보고·공시(PBS) 확대, 감독기구 권한 강화
- **투자 의사결정 시 ESG 고려 방식 공시, 투자정책서에 기재**
- **ESG를 반영한 효과적 지배구조 체계 구축, 임직원 적격성**
- **위험관리 시 ESG 투자위험 등 반영 방식 공시, ESG 투자위험 등 자체 평가**

연기금의 ESG 투자 및 투자자 활동 촉진,  
운용사 ESG 관리 통한 시장의 ESG 투자 및 투자자 활동 활성화

## IV. EU의 ESG 공시 규제 (3): 금융기관

### ❖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 (2019)

-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2018)
-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Directive) (2019)**

#### ▪ SFDR (2019)

- 투자 운용 수행하는 투자회사·은행·보험·연기금, 자문업자에 적용
- ESG·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 채택
- 상품 유형 구분, ① 회사 및 ② 상품 수준 공시 의무 (사전, 홈페이지, 사후)
- ① ESG 위험의 투자 통합, 투자의 중대한 부정적 위험(PAIs) 실사 정책 등 공시
- ② ESG 관련 상품의 ESG 투자 목표, 지표, 벤치마크 지수, 방법론 등 공시

▶ 투자자·금융사 간 ESG 정보 비대칭 및 그린워싱 완화, 투명성 확대  
ESG 관련 자본 흐름·공급 확대, 장기주의 촉진

## IV. EU의 ESG 공시 규제 (3): 금융기관

### ❖ 금융회사 위험관리 및 건전성 규제·감독 (2019, 2021)

-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2018)
- CRD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 V (2019), CRR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II (2019)
- IFD (Investment Firm Directive) (2019), IFR (Investment Firm Regulation) (2019)
- 지급여력규정 위임규정 Solvency II Delegated Regulation (2021)

#### ▪ CRD V, CRR II, IFD, IFR(이상 2019), Solvency II 위임규정(2021)

- 대상: 은행, 보험, 투자회사 등 금융회사
- ESG 위험에 관한 공시 의무화 (정의, 식별·관리 등 절차, 평가 기준 등)
- 유럽은행청(EBA)에 은행, 투자회사의 ESG 위험 감독에 관한 사항 검토 명령

▶ 금융회사가 대출, 투자, 보험 등에서 ESG 위험을 고려하도록 촉진  
금융회사의 ESG 건전성 규제·감독 틀 마련, 금융안정성 제고



## V. EU의 ESG 공시 규제 (4): 기업

### V. EU의 ESG 공시 규제 (4): 기업

#### ❖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2022)

- 회계지침 Accounting Directive (2013)
- 비재무정보보고지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4)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2022)**

#### ▪ CSRD (2022)

- 각종 ESG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기존 NFRD를 개선
- 대상 확대 [ $\geq 50,000$ , 대다수 상장사, 은행·보험(노동자 $\geq 250$ ), 역외 대형 모회사]
- ① 이중 중요성, ② 중대한 부정적 영향(PAIs) 실사 관련 공시, ③ 가치사슬
- 실사: PAIs 식별, 감시, 방지·완화·피해구제·종식 등 활동 전반
- 공시 내용(ESRS)·형식 통일, 경영보고서(통합경영보고서), 독립적 제3자 인증 등

기업을 ESG 공시 범위 확대, 비교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각종 ESG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반 마련

## V. EU의 ESG 공시 규제 (4): 기업

### ❖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 (2024)

- 유럽의회 결의안 (2021.3), 집행위원회 제정안 (2022.2)
-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2024.7)**

#### ▪ CSDDD (2024)

- 대상 [① 역내 대형회사(약 6,000사)(노동자≥1,000, 세계 순매출≥4.5억 유로 등), ② 역외 대형회사(약 900사)(EU 내 순매출≥4.5억 유로 등)]
- 위험 기반 인권·환경에 관한 실사 의무 명시, 단계적 접근
- 실사: PAIs 관련 경영활동·위험관리에의 통합, 식별·평가, 방지·완화, 피해구제, 이해관계자 대화, 고충처리, 실사 정책·활동 평가, 공개·소통
- 집행 강화 [감독기구 명시, 공공조달, 벌금(≥global 순매출 5%), 민사소송 등]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직접 의무화 (공시 등 간접수단이 아님)  
ESG·지속가능성을 반영한 회사법제 및 지배구조의 개혁**

## VI. 시사점

## VI. 시사점

### ❖ 시사점

- EU 규제 강화의 직·간접 영향을 분석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
- ERSR(CSRD)·SDS(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ISSB), KSSB 기준 외에도 **ESG 공시 규제, 나아가 ESG 규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
- 해외 ESG (공시) 규제의 흐름을 고려한 국내 규제 논의에 유의
- ESG 공시 규제에서 공통 공시 항목(전문성, 이해상충 방지 등)에 주의
- 규제 우선순위 고려 필요 (**금융사·기업 규제 vs 서비스제공자 규제**)

감사합니다.

# ESG 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 - ESG 공시의 국내 동향 -

2024. 11.13  
㈜대신경제연구소

## Contents

I ESG 국내·외 공시 동향

II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

III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

# I. ESG 국내·외 공시 동향

## 1. 국내·외 ESG 공시 동향\_주요 국가 공시

-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관련 타임라인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반해 국내 공시 일정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

[국내 및 주요 국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 동향]

구분	기준제정기구	보고연도*	보고기업	보고시기	Scope3 포함 여부	인증
EU	EFRAG	'25년 (FY2024)	재무제표 보고 기업	재무제표 동시 보고	요구(750인 이하 첫째 면제)	제한적 인증(3년 이내 합리적인증 고려)
미국	SEC	'26년 (FY2025)			요구하지 않음	제한적인증(일부기업은 4년 후 합리적 인증)
일본	SSBJ	'27년 (FY2026) 또는 '28년 (FY2027)			요구(적용 첫째 면제)	요구('28년부터)
호주	AASB	'26년 (FY2025)			요구(적용 첫째 면제)	-
캐나다	CSSB	'26년 (FY2025)			요구(적용 두 번째 해까지 면제)	제한적 인증('30년까지 합리적 인증 고려)
중국	재정부	'26년 (FY2025)			선택	선택
싱가포르	SGX	'26년 (FY2025)			요구(적용 첫째 면제)	제한적 인증
한국	KSSB	미정	미정	미정	요구하지 않음	미정

출처: 국회의원, 강준식 의원실 정책자료집(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 및 진단, 2024.10)

\*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보고연도는 대다수가 단계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연도를 의미함

- 모든 항목(스코프 3 제외)에 70% 이상 동의, 특히 글로벌 투자자는 공개초안보다 강화된 수준 (ISSB 기준과 일관된 기준)의 기준 제정을 촉구

**[동향]**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조회 최종 결과 보고  
(Summary of comments on the Exposure Draft  
of the KSSB standards)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  
2024. 9. 23.

**[동향]**

구분	내용	전체	기업	국내 투자자	
제 1 호	기후 우선 공시	78%	91%	69%	
	보고기업	연결실체	70%	49%	90%
	지침의 원천	SASB 참고 가능	85%	95%	69%
	기간 범위	기준서에서 정의를 제시	92%	93%	97%
제 2 호	미공시 사실 및 근거 기재	중요하지 않아, 미공시할 경우 그 사실 및 근거 기재	88%	81%	93%
	산업기반지표	공시 선택	87%	93%	8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세분화 공시	84%	79%	83%
	내부 탄소가격	가려 공시 선택	70%	74%	59%
		<b>(1) 의무화 여부</b>			
스코프 3 배출량	의무화 여부, 시기 미정	-	-	75%	
		<b>(2) 유예기간 (3년내)</b>			
		61%	50%	62%	
제 101호	정책 목적에 따른 추가 정보(선택)	72%	61%	83%	

**[동향]**

항목	기업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
공시의무 시기	'27년~'29년으로 고르게 분포	조속한 공시의무화 필요 (면책조항 필요)	늦은 공시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 → 조속한 공시의무화 필요
공시 위치	면책조항을 전제로 한 법정공시 또는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 등이 혼재	법정공시	법정공시
보고 시기	차기 6~8월	-	-
로드맵 수립시기	가능한 조속히	가능한 조속히	가능한 조속히

\* 한국회계기준원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정보의 적용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경과 규정 적용

### 선택 가능 항목

#### 기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시

- ▶ SASB 기준, 물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CDSB 프레임워크, GRI, ESRS 기준 등을 통해 참고하여 공시하도록 허용

#### 산업기반 지표 공시

- ▶ 공통으로 공시 해야하는 7가지의 지표 범주 외 산업기반 지표의 경우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내부 탄소가격 중 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톤당 가격에 대한 정보 공시

- ▶ 산업전반 지표 중 하나인 내부 탄소가격의 경우 기업이 내부 탄소가격을 의사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 공시할 것을 요구
- ▶ 다만, 기업이 사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에 대한 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음

### 경과 규정

-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첫 해, **비교정보\*** 공시를 면제하는 경과규정 적용
- ▶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의무화 시기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 \* 모든 값에 대한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

출처: KSSB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1. 국내·외 ESG 공시 동향\_ KSSB/ISSB와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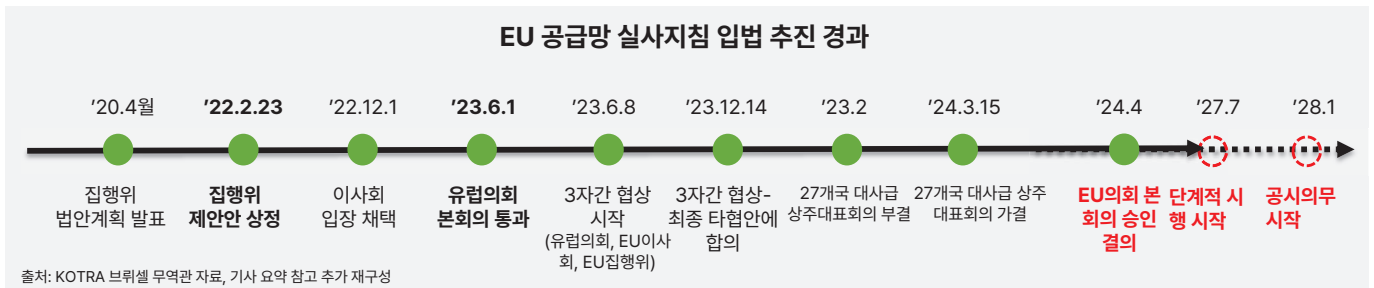
제 1호 일반사항	KSSB 공개 초안	ISSB 기준
기후 우선 공시	기후는 의무 공시, <b>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b> 공시여부는 기업이 선택	적용 첫해에 한해 기후 우선 공시, 그 후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공시
지침의 원천: SASB 기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적용가능한 공시사항을 식별할 때 <b>SASB 기준도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에 해당</b> (그와: 물 관련 공시를 위한 CDSB 프레임워크 적용지침 등)	SASB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
발행승인일, 승인자 공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발행 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	해당내용 없음
단기, 중기, 장기 정의	단기 1년, 중기 1~5년, 장기 5년 이후로 정의 다만, 이는 참조사항이며 다른 정의를 적용할 수 있음 (제 1호, 2호 모두 적용)	해당내용 없음

제 2호 기후관련 사항	KSSB 공개 초안	ISSB 기준
미공시 사실 기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b>공시를 생략한 경우, 그 사실 및 근거를 기술</b>	해당내용 없음
Scope 3 배출량	Scope 3 배출량을 공시, 단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결정 (추정치 사용 가능, 관련 지침이나 교육자료 개발 예정)	기준 적용 첫해에 먼저 조항을 두어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추정치 사용 가능)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및 공시 세분화	GHG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허용단, <b>측정 방법별로 배출량 정보를 세분화해서 공시</b> (보고기업(연결실체) 배출량 측정을 위한 지침과 교육자료는 개발 예정)	GHG프로토콜을 적용하되, 관할당국이 요구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도록 허용
내부 탄소가격	내부 탄소가격 관련 정보 중 탄소가격의 적용여부와 적용 방법에 대한 공시 요구 <b>탄당 가격 공시 여부는 기업이 선택</b>	내부 탄소가격 적용 여부, 방법, 톤당 가격 공시 요구
산업기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 (제2호에서 이를 공시하기로 선택한 경우,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을 참고할 수 있음)	산업기반 지표 공시를 요구

# 1. 국내·외 ESG 공시 동향\_ (예)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 ➤ 2024. 7 공급망실사지침(CSDDD) 발효

###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인권 및 환경보호를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




구분 (평균 근로자 수 및 순매출액 기준)		적용시기 (EU CSDDD 발효일로부터 기산)
역 내	5천명 초과 &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3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8.1.1. 이후 발생)
	3천명 초과 & 전세계 9억 유로 초과	4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1천명 초과 & EU 내 4.5억 유로 초과	5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역 외	EU 내 15억 유로 초과	3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8.1.1. 이후 발생)
	EU 내 9억 유로 초과	4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EU 내 4.5억 유로 초과	5년 후(단, 공시의무는 2029.1.1. 이후 발생)

### ➤ 대한상공회의소, AI(ChatGPT) 활용한 2024년 기회와 리스크 요인 분석 발표

- ✓ 주요 기회: 탄소중립 및 ESG, 글로벌 시장, 디지털 전환 적시 도입
- ✓ 주요 리스크: 공급망, 3고(高), 디지털 전환 지체

[AI가 분석한 우리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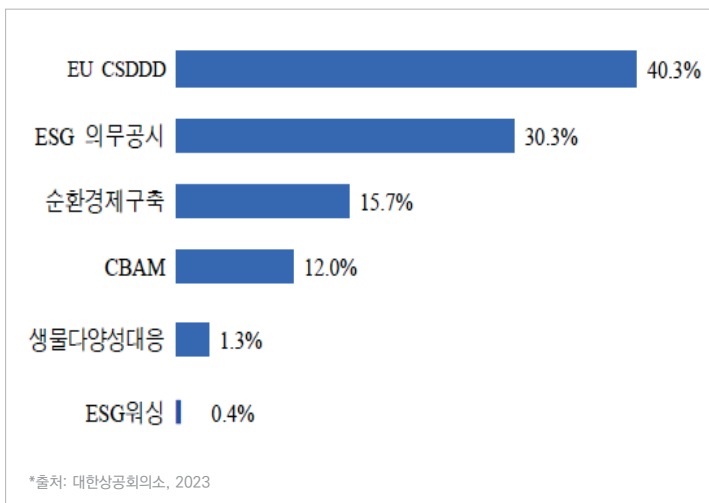
- 주요 Key-word: **ESG,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 조사기업과 분석대상
  - 조사기업: 2023년말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47개사(자료 확보 기준)
  - 분석대상: 각 회사 CEO 2024 경영메시지(임직원 대상 스피치, 시무식 인사말, 신년사 등)

No.	기회요인	리스크 요인
1	탄소중립 및 ESG 기조 강화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
2	글로벌 시장 확장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3	디지털 전환, AI의 적시 도입	디지털 전환, AI 도입 지체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AI가 분석한 우리기업의 기회와 리스크 요인(2024.03.07)

-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EU CSDDD(40.3%), ESG 의무 공시(30.3%), 순환경제 구축 (15.7%), CBAM(12.0%) 등의 순으로 응답
- 다만, 국내 주요 기업은 CSDDD에 대한 대응 수준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CSDDD에 대한 대기업 협력사 ESG대응 현황]

구분	인식수준(점) <sup>단</sup>				대응수준(점) <sup>단</sup>			
	전체 <sup>단</sup>	대 <sup>단</sup>	중견 <sup>단</sup>	중소 <sup>단</sup>	전체 <sup>단</sup>	대 <sup>단</sup>	중견 <sup>단</sup>	중소 <sup>단</sup>
CBAM <sup>단</sup>	55 <sup>단</sup>	60 <sup>단</sup>	57 <sup>단</sup>	53 <sup>단</sup>	35 <sup>단</sup>	53 <sup>단</sup>	37 <sup>단</sup>	32 <sup>단</sup>
EU CSDDD <sup>단</sup>	44 <sup>단</sup>	55 <sup>단</sup>	47 <sup>단</sup>	41 <sup>단</sup>	35 <sup>단</sup>	47 <sup>단</sup>	41 <sup>단</sup>	30 <sup>단</sup>
CU CSRD <sup>단</sup>	46 <sup>단</sup>	55 <sup>단</sup>	49 <sup>단</sup>	43 <sup>단</sup>	38 <sup>단</sup>	52 <sup>단</sup>	44 <sup>단</sup>	33 <sup>단</sup>
Battery Regulation <sup>단</sup>	30 <sup>단</sup>	42 <sup>단</sup>	29 <sup>단</sup>	30 <sup>단</sup>	24 <sup>단</sup>	29 <sup>단</sup>	23 <sup>단</sup>	23 <sup>단</sup>
ESPR <sup>단</sup>	34 <sup>단</sup>	55 <sup>단</sup>	34 <sup>단</sup>	32 <sup>단</sup>	32 <sup>단</sup>	38 <sup>단</sup>	35 <sup>단</sup>	29 <sup>단</sup>
PPWR <sup>단</sup>	41 <sup>단</sup>	65 <sup>단</sup>	36 <sup>단</sup>	41 <sup>단</sup>	38 <sup>단</sup>	40 <sup>단</sup>	38 <sup>단</sup>	37 <sup>단</sup>
6개 항목 평균 <sup>단</sup>	42 <sup>단</sup>	55 <sup>단</sup>	42 <sup>단</sup>	40 <sup>단</sup>	34 <sup>단</sup>	43 <sup>단</sup>	36 <sup>단</sup>	31 <sup>단</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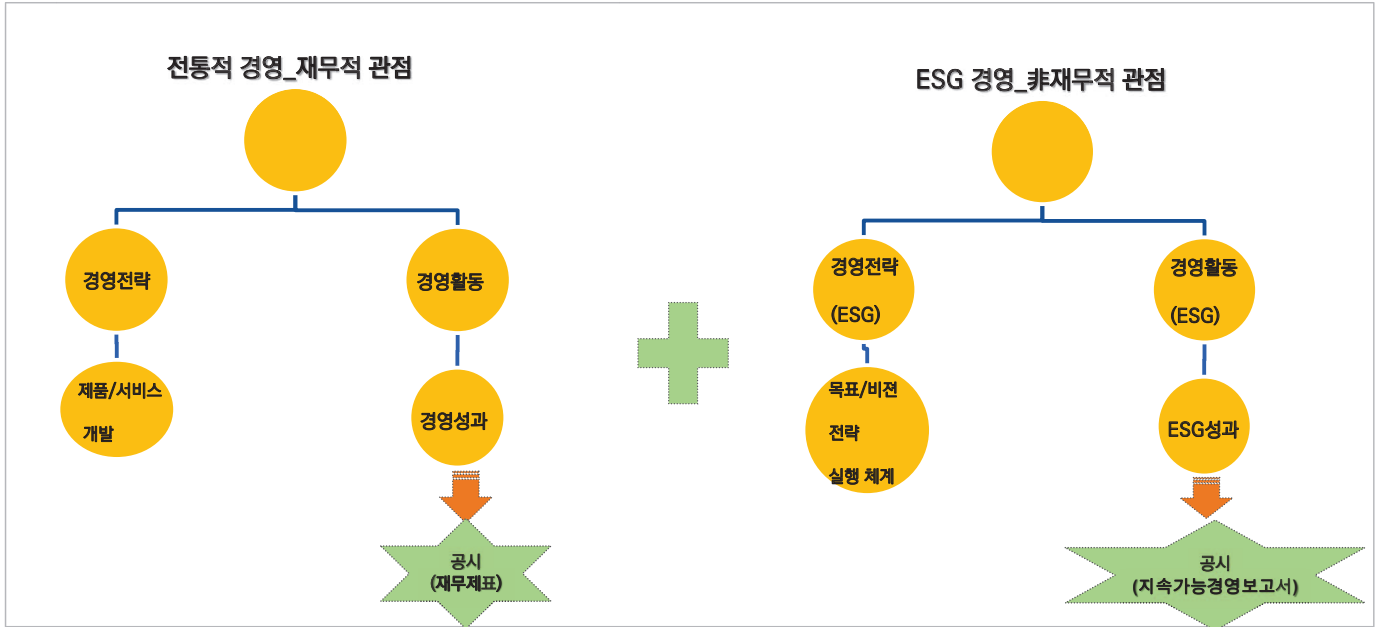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SG 제고관점에서 기업지속가능성 실사대응을 위한 정책과제(2024.08.28)>



### ➤ 전략수립과 정보공개 책임 요소

✓ ESG경영은 ESG 경영전략의 수립과 적절한 ESG 정보공개가 핵심요소임.

#### [재무 및 비재무 경영]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 등 정보공개 일정(자산2조원 이상, 2026년) 공개

####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정보공개]

구분	유형	의무/자율	관련 규정 및 내용
정보공개	사업보고서	의무	-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의무 공시 -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규정(제33장_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따라 회계정책으로 채택 - 환경: 환경 관련 정부규제 준수 사항,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 사회: 고용 현황 및 임원보수, 양성평등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자율	- 의무: 2019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2022년 이후 자산 1조원 이상, 2024년 이후 0.5조원 이상, 2026년 0.5조원 미만 기업 대상 - 자율: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지속가능보고서	자율/의무	- 자율: 2020년 중 거래소에 보고서 공시한 40개사를 포함한 총 109건 - 의무: 1단계: 자율공시 2단계(2026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 3단계(2030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
	거래소 공시	의무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녹색기업 지정은 수시공시(거래소 공시) -사회: 가족친화경영정보, 노사관계
	개별법	의무	-환경: 환경보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성과에 관한 사항 등 공개(환경정보시스템 공시) -사회: 고용형태(고용안정정보망 공시), 어린이집설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시)
책임투자	한국 스투어드십 코드 제정	-	2016년 12월 제정
	국민연금,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	2018년 7월 도입
	국민연금, ESG 요소 고려	-	2019년 11월 <기금운용원칙> 개정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국내 환경 및 사회, 지배구조 중 지배구조 분야의 제도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으며, 사회 및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진

[ESG 관련 국내 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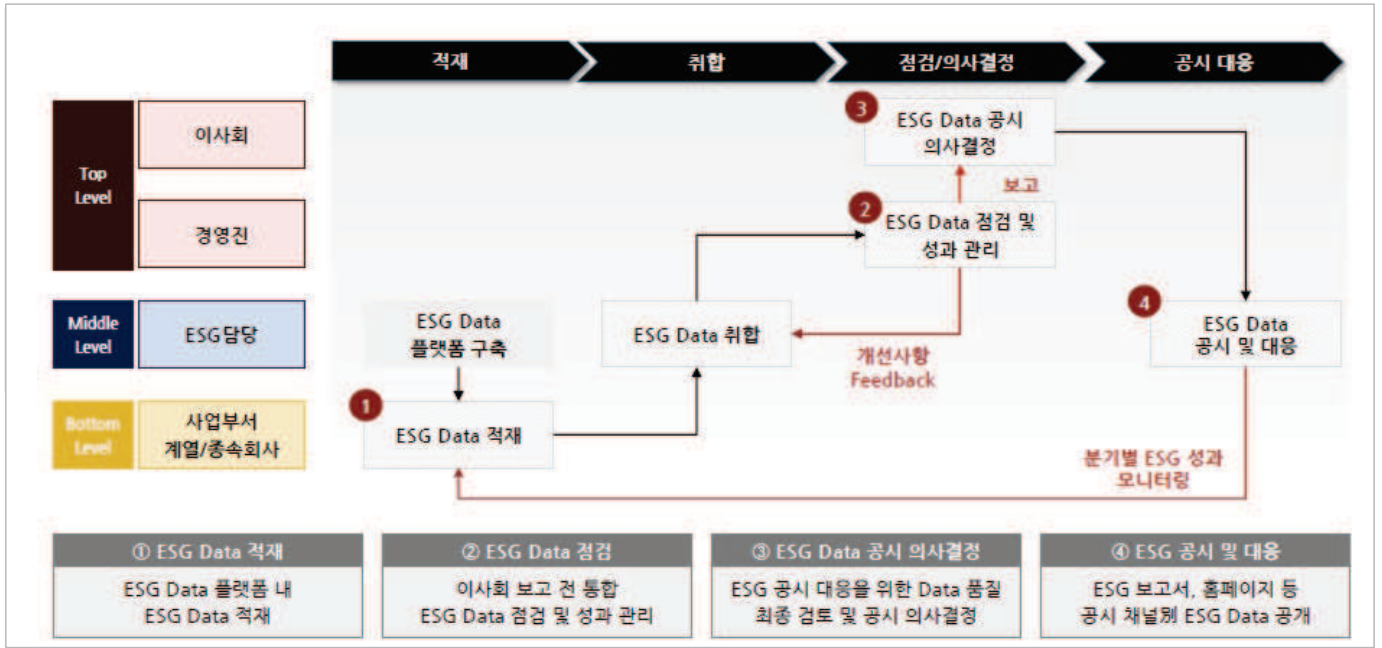
환경		사회		지배구조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15년	2016~2020년	2011~2015년	2016~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탄소인증제품(2011)</li> <li>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제도(2011)</li> <li>화학물질 등록제도 (2013, 201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 평가제도(2018)</li> <li>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2018)</li> <li>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의 개정(2007, 2019)</li> <li>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2019)</li> <li>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2020)</li> <li>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2022.03.&g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O22301 비즈니스 연속성경영시스템(2012)</li> <li>안전인증제도, 안전확인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2014, 20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자기본법 개정(2017)</li> <li>ISO4500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2018)</li> <l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18)</li> <li>데이터 3법(2020)</li> <li>중대재해처벌법 (2022..1.2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법 종류주식(2011)</li> <li>상법 이사의 책임 (2011)</li> <li>상법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20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직무의 제한 (2016)</li> <li>외부감사법 외부감사의 대상 (2018)</li> <li>자본시장법 여성임원할당 (2020)</li> <li>상법 시행령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2020)</li> <li>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2차 개정 (2016)</li> <li>감사위원회 모범규준 (2018)</li> <li>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2018)</li> <li>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2016)</li> <li>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2조원 이상 공시 의무화 2019)</li> </ul>

# 기업의 ESG 경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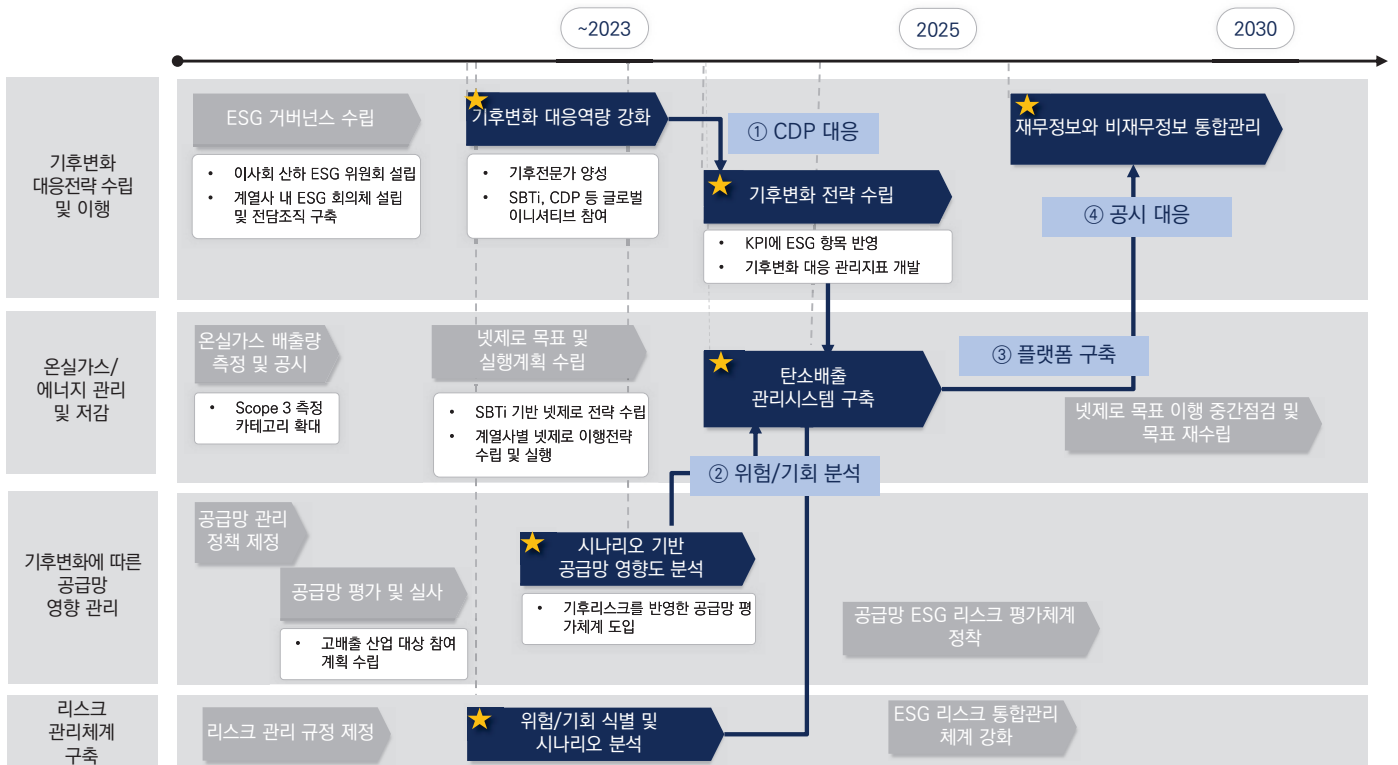
- ESG Data 관리 및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Top Middle Bottom Level 간 명확한 R&R 설정을 기반으로 한 Due Process 구축

[ESG 공시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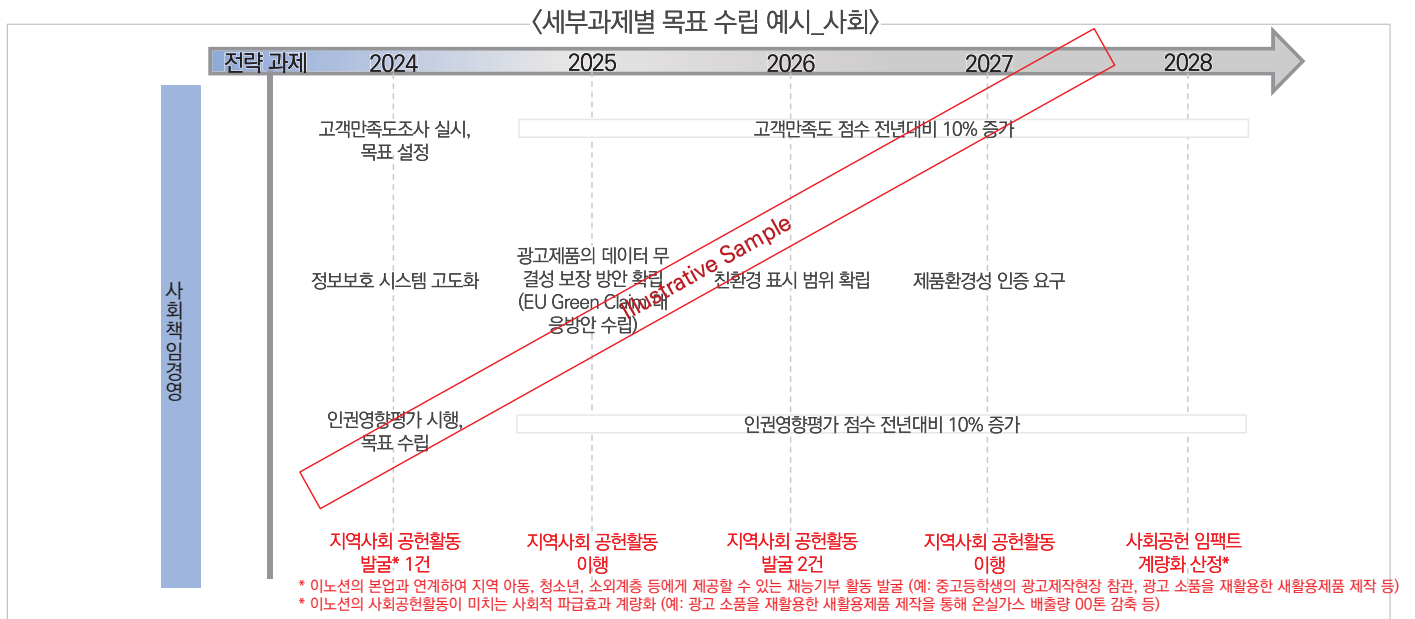


자료: 한경산업기술원 ESG ON 세미나(2024.01.17, 김앤장)

- 기후변화 대응 내재화를 위해서는 ①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이행 ②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및 저감 ③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영향 관리 ④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각 세부 과제에 따른 연도별 KPI와 중장기 목표를 포함한 전체적인 로드맵 수립



#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

## ➤ 국내 금융기관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언 내지 ESG 정보공개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

[국내 금융 관련 15개 공공기관의 ESG 관련 국제협약 등의 가입 또는 지지 선언 현황]

구분	공공기관명	개수
TCFD 지지	사학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10
CDP	공무원연금, 기업은행	2
탈석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업은행(21. 4 예정)	3(4)
NZBA	기업은행	1
UN PRI	국민연금	1
UN EPFI, PRB	기업은행	1
UNGC	신용보증기금	1
EP	산업은행	1
OPSWF	투자공사	1
CIGN	국민연금, 투자공사	1
해당사항 없음	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언론, 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5

[국내 금융 관련 17개 공공기관의 ESG 정보공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탁자책임 및 책임투자 관련 공시
중소기업은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투자공사	지속가능투자보고서 공시 수탁자책임 및 책임투자 공시
자산관리공사	사회책임경영보고서 공시
수출입은행	ESG 경영소개서 발간
신용보증기금	UNGC COP ( ) 연차보고서 공시

자료: 국회 정책연구지원단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의 질의에 대한 주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ESG경영 관련 답변서, 경제개혁연구소, 2021.12.16

# 1. ESG 금융투자 및 평가기관 동향\_ 국내 공공 금융기관의 ESG 투자동향\_ 목표 수립기관

## ➤ 목표연도와 목표 기준이 서로 상이해 금융기관별 비교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 등에 공시할 때 관련 공시 기준을 맞춰볼 필요가 있음.

[섹터별 개별 ESG 금융 목표 수립 기관]

	금융기관명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공적	연기금	신용보증기금	2023년	2.68	기타
		공무원연금기금	2023년	1.40	잔액기준
		국민연금기금	2023년	-	기타
	공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30년	206.17	기타
		KDB산업은행	2030년	13.20	투입금액
		중소기업은행	2030년	9.30	투입금액
기타 공적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	173.90	투입금액	
	우정사업본부	2023년	11.00	잔액기준	
민간	은행	예금보험공사	2023년	1.35	기타
		KB국민은행	2023년	28.63	잔액기준
		하나은행	2030년	28.00	투입자금 누적금액
		NH농협은행	2030년	17.68	기타
		우리은행	2023년	9.04	투입자금 누적금액
	보험사 (생명보험)	신한은행	2023년	1.02	투입자금 누적금액
		한화생명보험	2030년	5.5-6.5	기타
		삼성생명보험	2030년	20.00	잔액기준
	보험사 (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2030년	운용자산의 7%	투입금액
		삼성화재해상보험	2030년	15.5	투입자금 누적금액
		KB손해보험	2030년	4.42	잔액기준
	증권사	NH농협손해보험	2030년	2.04	기타
		미래에셋증권	2025년	45.00	기타
		KB증권	2023년	1.36	잔액기준
		다음투자증권	2030년	1.10	투입금액
자산운용사	NH-Amundi자산운용	2023년	0.43	기타	
	BNK자산운용	2023년	0.27	잔액기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0.13	기타	

자료: 국회의원 이용우(2022 한국ESG 금융백서, KOSIF)

환경	글로벌 ESG 평가지표					사회	글로벌 ESG 평가지표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1. 온실가스 배출량	○			○	○	1. 산업 보건 및 안전	○	○	○	○	○
2. 에너지 사용량	○			○	○	2. 인권	○		○	○	○
3.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		○		3. 다양성 및 기회균등	○		○	○	○
4. 폐기물 배출량/재 이용량					○	4. 개인정보 보호		○	○	○	○
5. 생물다양성 보호 등		○	○		○	5. 공급망 관리		○	○	○	○
6. 물 사용	○					6. 제품/서비스 안전		○	○	○	○
7. 공급업체 환경평가					○	7. 지역사회		○	○	○	○
8. 탄소배출량		○	○			8. 노사관계		○		○	○
9. 대기 질				○		9. 정보보안		○		○	○
10. 원재료 소실	○	○	○		○	10. 신규고용 및 이직	○				○
11. 환경 법규 위반 사고					○	11. 비차별	○				○
12. 생물다양성&토지이용		○	○			12. 아동 강제 노동	○				○
13. 기후변화 대응		○				13. 인적자본관리		○	○		
14. 용수 및 폐수 관리					○	14. 임직원 교육					○
15. 환경정책 운영	○					15. 표시 광고				○	

지배구조	글로벌 ESG 평가지표				
	WEP (세계거래소연맹)	MSCI	Sustainalytics	SASB	GRI
1. 윤리경영 및 반부패	○			○	○
2. 이사회 독립성	○				
3. 감사기구					
4. 비즈니스 윤리		○		○	○
5. 외부감사인 독립성	○				
6. 경쟁저해행위				○	○
7. 이사회 다양성	○				
8. 이해관계자 참여					○
9. 간접 경제적 영향					○
10. 경영철근방식 공개					○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글로벌 ESG평가사별로 산업별 점수의 가중치는 상이한 관계로, 기업은 해당기업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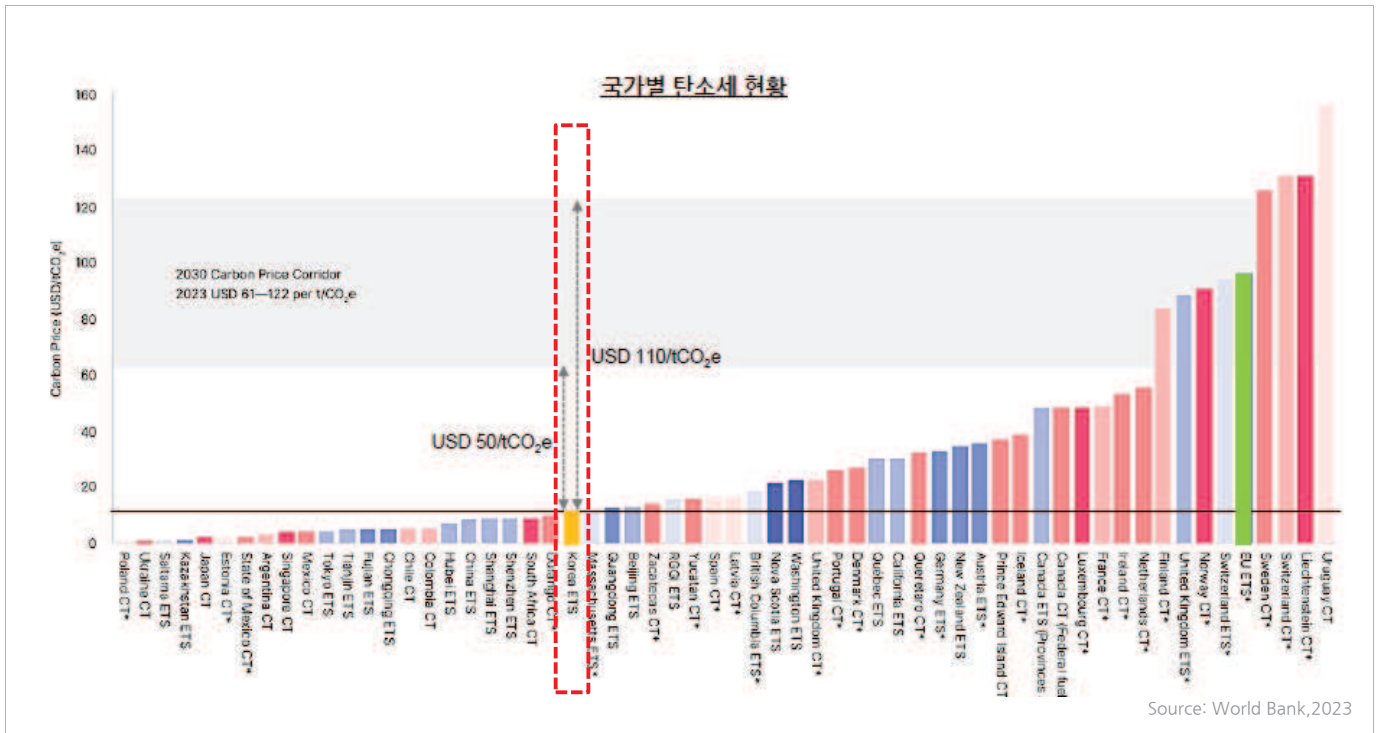
[글로벌 ESG 5대 평가사 비교]

구분	S&P Global (RobecoSAM)	Sustainalytics	MSCI ESG Research LLC	FTSE Russell	ISS-oekom
평가 항목, 지표, 세부 지표수	37개 항목, 100개 지표, 세부지표(데이터포인트)	20개 항목, 227개 지표	10개 항목, 37개 지표, 230개 세부 지표	14개 항목, 300개 지표, 세부 지표 존재 기업별 평균 125개 지표	6개 항목, 총 45개의 지표, 800개 세부지표 중 산업별로 약 100개의 세부지표를 선정
산업 구분 기준	GICS에서 61개 산업을 별도로 분류	138개 업종으로 자체 분류	GICS의 하위산업분류에 따라 구분	Dow Jones와 FTSE가 만든 Industry Classification Benchmark(ICB)로 분류. 11개 산업 20개 supersector, 45개 sector, 173개 subsector로 구성	SASB 구성된 산업에 대해서 ISS-Oekom의 산업별 분류 Matrix를 적용하여 총 25가지의 카테고리 분류
산업별 점수 가중치 차이	업종별로 상이한 가중치				
등급 단계	업종별 상대평가 상위기업을 3단계의 상승폭이 큰 기업을 Industry Mover로 선정해 공개	Negligible ~ Severe 5개 등급	7단계(AAA(Best), AA, A, BBB, BB, B, CCC(Worst))	0~5점의 점수 부여	D-에서 A+까지 총 12개 등급 분류 체계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현재의 탄소 가격이 유지될 경우 국내 CBAM 대상 기업의 CBAM 비용은 탄소 1 톤당 50~110 달러 수준의 범위에서 결정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생산 공정 효율 향상 필요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온실가스 관련 사회적비용을 이산화탄소 1톤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탄소가격 환산)

- 국내 주요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필요한 사회적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이 재무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사회적비용은 이산화탄소 1톤을 감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상 각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대응

### [글로벌 탄소가격의 지역별 적정가격 시나리오]

구분	선진국 (Advanced countries) (미국, EU, 중국 등)	고소득_신흥국가 (Higher-income emerging economies)	저소득_신흥시장 (Lower-income emerging countries)
탄소 최소가격 제안	\$75	\$50	\$25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한국거래소, KAU21기준)		-	\$17

\*출처: IMF(The critical role for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s, 2021.6.18), KRX KAU21 가격은 2021/07/07 기준

###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

(단위: 백만톤 CO2eq)

구분	확정				잠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배출량	692.5	693.5	709.7	727.6	699.5	648.6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1.6.7 기준)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보다 중견기업 중심으로 온실가스 관련 재무적 영향도 상대적으로 커

- 탄소감축에 따른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향후 중견기업의 탄소감축에 필요한 정부지원 및 정책이 필요
  - 탄소감축에 따른 탄소보상배출(영업이익/사회적비용)이 중견기업이 대기업 상장기업에 그 배율이 낮음

####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92개社)의 탄소보상배출]

(단위: 억원, 톤CO2eq,%)

구분	영업이익 (a)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세	사회적비용 (b)	탄소보상배출 (a/b)
탄소배출권 가격					
- 17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19,450원	18,291억원	<b>46.5</b>
- 25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22,760원	21,403억원	<b>39.8</b>
- 40달러 기준	851,711억원	9,404만톤	34,140원	32,105억원	<b>26.5</b>

#### [非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106개社)의 탄소보상배출]

(단위: 억원, 톤CO2eq,%)

구분	영업이익 (a)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시세	사회적비용 (b)	탄소보상배출 (a/b)
탄소배출권 가격					
- 17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19,450원	29,526억원	<b>5.7</b>
- 25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22,760원	34,551억원	<b>4.9</b>
- 40달러 기준	168,758억원	15,180만톤	34,140원	51,827억원	<b>3.3</b>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영업이익은 3년 평균, 탄소배출권 시세는 2021.7.7, 탄소배출량 상위 106개사 기준

Copyrights 2024 Daishin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감사합니다



| 한국금융공학회 |

## ESG 공시에서 TCFD와 탄소크레딧 레이팅 플랫폼

November 13, 2024

Taesun Kim | Carbon Market Analyst

Energy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NAMU EnR Co., Ltd.

Seoul Korea

[www.namuenr.com](http://www.namuenr.com)

김태선 대표 | ☎ 010.5727.7772 | [taesunkim66@gmail.com](mailto:taesunkim66@gmail.com)

경력 : 현대선물 금융공학팀 | 제일선물 투자공학팀 | 삼성투신운용 인덱스펀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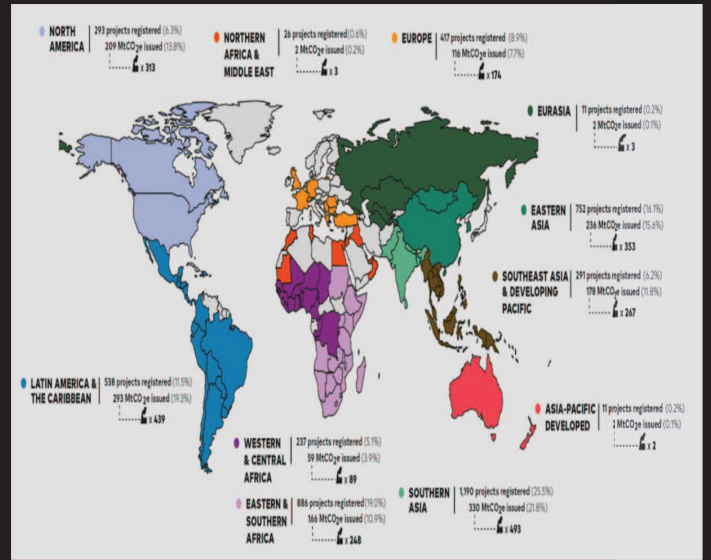
수상 : 환경부(MOE) 장관상 |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 한국선물협회 협회장상

강의 : 한국경제신문 필진 | EU ICE Carbon Market 강의 | KAIST 녹색금융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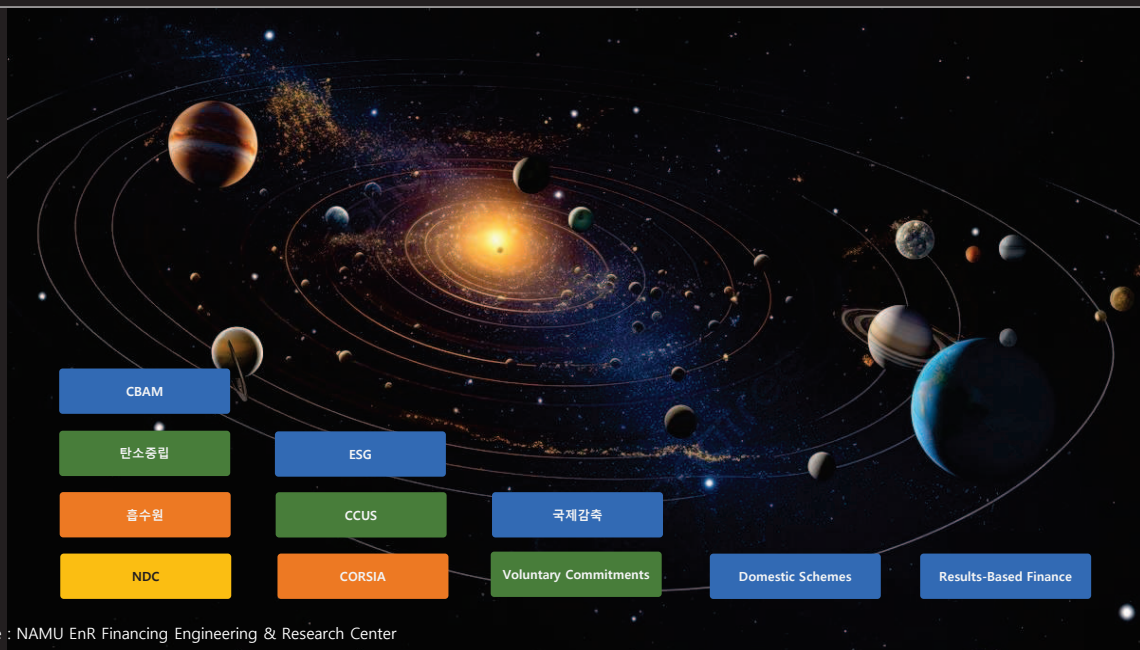
저서 : 탄소시장의 비밀 | 탄소시장 인베스트 |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101



# Global Carbo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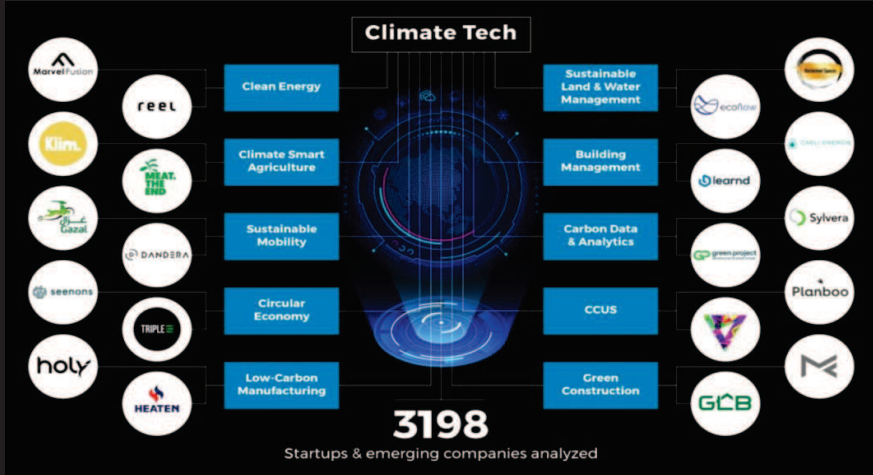


# Global Carbo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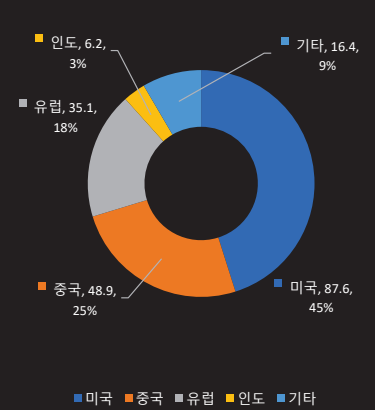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 Top10 Climate Tech Trends in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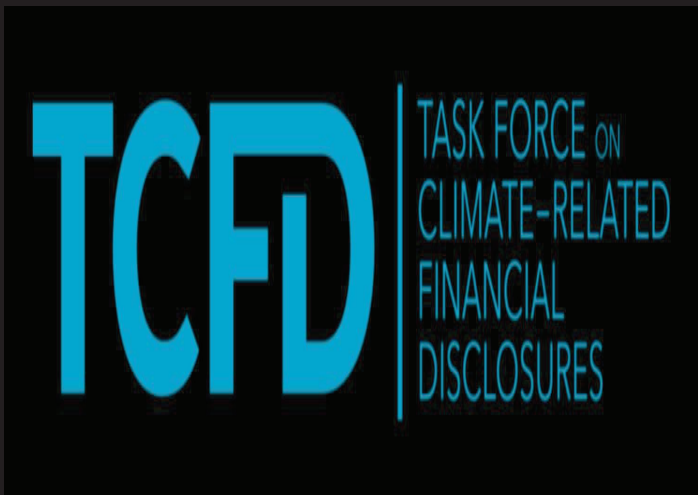


## VC Investment (2010~2022)

[USD Billion, %]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olon IQ, StartUs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약자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임. TCFD는 지난 2015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금융안정 위원회(FSB)가 설립,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배구조, 위험관리, 목표관리 등의 기업 정보 공개를 권고함

TCFD는 기업이 기후 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기후 위기 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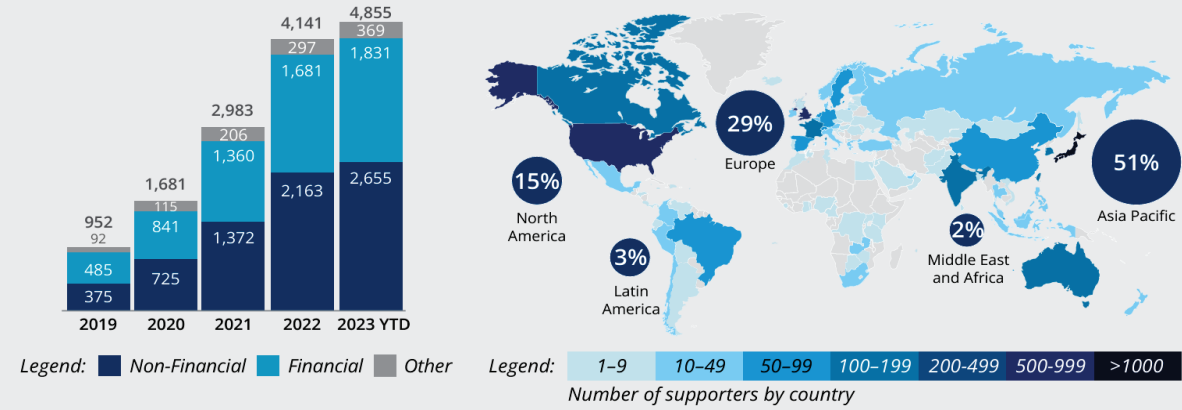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 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일본도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TCFD 권고안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이라는 틀로 구성되어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의 핵심 보고 항목(사업모델, 정책 및 실행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 요소 및 관리 방안, 주요 성과 지표)으로 구성된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함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탄소시장 인베스트, 김태선 저, 두드림미디어

Box D1

### Number and Geographic Distribution of TCFD Suppor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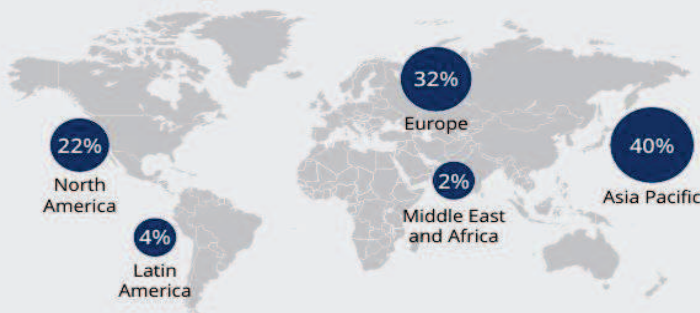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Box E1

### Demographics by Region and Top 5 Countries

Percent and Number of Companies

#### Distribution by Region



#### Top 5 Countries by Number of Companies

Japan	1,101
United States of America	916
United Kingdom	391
Republic of Korea	179
France	171

Source: CDP, Responses to CDP Climate Change 2022 Questionna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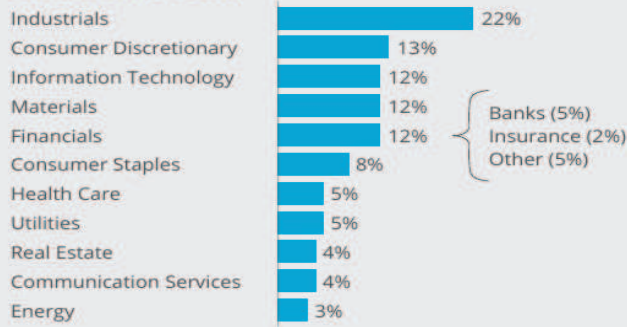
Base size: 5,021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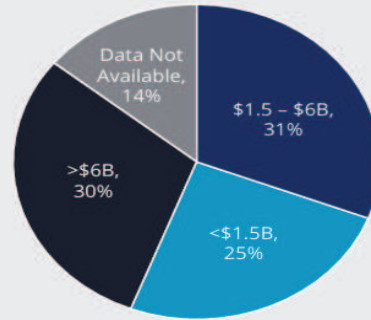
Box E2  
Demographics by Sector and Company Size

Percent of Companies

Distribution by Sector



Distribution by Market Capitalization



Source: CDP, Responses to CDP Climate Change 2022 Questionnaire

Base size: 5,021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https://www.fsb.org/uploads/P121023-2.pdf>

TCFD - 4대 영역별 세부 공시 항목

1. 거버넌스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2. 전략

- 기업이 식별한 단·중·장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과 전략·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 2°C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회복 탄력성

3. 리스크 관리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평가·관리 절차가 기업의 전사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4. 지표·목표

-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평가에 사용한 지표
-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가능 시 3까지) 및 관련 리스크
-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TCFD



## 더가디언 등 언론3사 “베라, 탄소크레딧 94%는 환상! 감축 성과 없어”



‘23년 1월 18일, 더가디언은 독일 주간지 디차이트, 탐사보도매체 소스머터리얼 등과 합동취재 및 분석을 통해 베라(Verra)의 산림보호에 의한 탄소크레딧의 90% 이상이 기후에 기여하는 가치가 없다고 보도했다.

1) 베라에 등록된 열대우림 프로젝트들 가운데 일부만이 삼림벌채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발행된 탄소크레딧의 94%가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에 따르면, 베라에 의해 등록된 인증 사업의 효과가 평균 400%가량 부풀려졌다.

3) 명품 기업 구찌, 석유 기업 셸, 소프트웨어 업체 세일즈포스 등 유명 기업 상당수가 베라의 친환경 주장에 입증하여 크레딧을 구매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기어라고 홍보 중이다.

4) 이들 REDD+ 프로젝트들 중 최소 1개는 인권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더가디언이 취재한 남미 페루의 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원경비원과 경찰들이 톱과 밧줄로 열대우림 속 현지인들의 집을 부셨고, 일부는 당국에 의해 강제 퇴거 위험에 직면했다.

베라를 통해 승인된 REDD+에서 나온 탄소크레딧 중 94%는 발행이 적절하지 않단 분석이 나왔다

※ <https://greenium.kr/greenbiz-industry-vc-m-verra-redd-guardian/>

## ‘청정 콕스토프’ 지원사업...“탄소상쇄 10배 부풀려 거래”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탄소상쇄 방법인 ‘청정 콕스토프’ 보급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실질적 혜택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져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목재와 파라핀, 등유 등 연기가 많은 연료로 취사를 한다.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해 매년 320만명이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콕스토프’는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친환경 취사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밥솥처럼 깨끗한 대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고 사람들의 건강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땀감을 구하기 위해 산림과 서식지를 훼손하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이에 국제구호단체들이 앞다퉈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콕스토프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훼손을 줄이고 건강과 사회 환경에 이점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 탄소배출권을 상쇄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콕스토프 보급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탄소거래 추적연구소 버클리 탄소거래 프로젝트(Berkeley Carbon Trading Project)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5월~11월까지 콕스토프 프로젝트가 신규 배출권의 약 15%를 차지했을 정도다. 각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2) 1톤을 의미한다.

하지만 콕스토프의 탄소배출상쇄가 실질적인 기후혜택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콕스토프 프로젝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성되는 탄소상쇄보다 10배 과장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 저자인 안넬리스 길위(Annaliese GillWieh)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연구원은 “5가지 콕스토프 탄소배출상쇄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시장의 40%에 해당하는 샘플이 9.2배 과대평가됐다”면서 “이를 전체 시장으로 추산하면 탄소배출상쇄가 약 10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면 결국 탄소거래시장의 신뢰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진은 “콕스토프 사업 자체가 문제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탄소배출권에 관한 규칙을 개혁해 신뢰할 수 있는 기후 재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콕스토프 프로젝트가 과장돼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강조했다. 실제 일부 콕스토프 보급단체는 콕스토프 사용량 제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 ※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401240010>

## Climate Impact X | Marketplaces

	<p><b>Keo Seima Wildlife Sanctuary</b> Cambodia</p> <p>Project Code: 1650 Project Category: Avoidance &amp; 1 more Project Type: REDD+ Standards: VCS &amp; 1 more</p> <p>BBB 8 Co-benefits</p>		<p>From <b>\$3.00</b> USD/tonne</p> <p>7,593 tonnes available Vintage: 2017</p> <p><a href="#">Project details</a></p>
	<p><b>Rio Anapu-Pacaja REDD+ Project</b> Brazil</p> <p>Project Code: 2252 Project Category: Natural Climate Solutions &amp; 1 more Project Type: REDD+ Standards: VCS &amp; 1 more</p> <p>BB 6 Co-benefits</p>		<p>From <b>\$3.30</b> USD/tonne</p> <p>60,444 tonnes available Vintage: 2018 - 2020</p> <p><a href="#">Project details</a></p>
	<p><b>Cordillera Azul National Park REDD+ Project</b> Peru</p> <p>Project Code: 665 Project Category: Avoidance &amp; 1 more Project Type: REDD+ Standards: VCS &amp; 1 more</p> <p>B 7 Co-benefits</p>		<p>From <b>\$4.50</b> USD/tonne</p> <p>5,175 tonnes available Vintage: 2017 - 2018</p> <p><a href="#">Project details</a></p>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Climate Impact X, UN SDGs

## UN SDGs(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 Goal 1 :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 Goal 2 : 기아 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 Goal 3 :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 증진
  - Goal 4 :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 제공과 평생 학습 기회 제공
  - Goal 5 : 양성 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 Goal 6 :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 Goal 7 :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 Goal 8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보장
  - Goal 9 :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 Goal 10 :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 Goal 11 :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 Goal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 Goal 13 :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
  - Goal 14 :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 노력
  - Goal 15 : 육지 생태계 보존과 산림 보존, 사막화 방지, 생물 다양성 유지
  - Goal 16 : 평화적, 포괄적 사회 증진,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 Goal 17 : 이 목표들의 이행 수단 강화와 기업 및 의회, 국가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THE CORE CARBON PRINCIPLES

The CPPs set a global benchmark to ensure integrity in the voluntary carbon market.

### EMISSIONS IMPACT

1. Additionality
2. Permanence
3. Robust quantification of emission reductions and removals
4. No double counting

### GOVERNANCE

5. Effective governance
6. Tracking
7. Transparency
8. Robust independent third-party validation and verification

### SUSTAINABLE DEVELOPMENT

9. Sustainable development benefits and safeguards
10. Contribution to net zero transition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ICVCM Committee, 자발적 탄소시장 다이제스트 김태선 두드림미디어 2024.06 발간 예정

# Voluntary Carbon Market



**BeZero** Search Contact | Log out

**Rimba Raya Peatland Project**  
ACCREDITOR VCS REGISTRY 674 RATING AAA LOCATION IDN Analytics charts

**Location**  
Indonesia

**Sector group**  
Nature Based Solutions

**Sector**  
Soil Carbon

**Sub-sector**  
Peatlands

**Accreditor**  
VCS

**Methodology**  
VMO04

**Project start date**  
01/11/08

**Vintage**  
01/07/09 - 30/06/19

**Credit Type**  
Avoidance

**Corsia Eligible**  
No

**Description**  
In recent years, national forest coverage in Borneo has decreased drastically due to forest areas being cleared for agricultural use. This REDD+ project aims to preserve 84,000 ha of tropical peat swamp forest on the coast of Borneo, reducing Indonesia's emissions whilst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Tanjung Puting National Park. In the project's absence, the peatland area would be converted to palm oil plantations by logging and systematic draining of the peatland.

**Rating summary**  
BeZero Carbon has assigned credits issued by the Indonesia-based Rimba Raya Peatland Project (VCS 674) a AAA BeZero Carbon Rating. Carbon credits rated AAA provide a high likelihood of achieving 11 tonnes of CO<sub>2</sub>e avoidance or removal.  
The rating reflects the project's strong additionality because its viability is primarily dependent on carbon finance. It is further supported by the project's low risk of over-crediting, its success in the face of an unsupportive policy environment and adequate contribution to the buffer pools. The rating is constrained by high leakage risks due to peatland drainage for agriculture, and the potential for perverse incentives, such as soil erosion.

**BeZero Carbon Rating** Last reviewed date: 04/04/22

**AAA**

**SDGs**

**Rating Details**

<b>Additivity</b>	Strong score largely driven by financial barriers.
<b>Over-crediting</b>	Low risks based on peat data
<b>Leakage</b>	Activity displacement creates leakage risks
<b>Permanence</b>	Some country risks tempered by buffer pool
<b>Policy Environment</b>	Highly unfavourable policy environment drives strong score
<b>Perverse Incentives</b>	Some risk presented by soil erosion

MacBook Air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 Voluntary Carbon Market



**Calyx Global** Explore Insights Analytics Markets Following (9) My Profile

**Carbon Project Project A**

Status registered Meru, Nanyuki, Kenya On watch

This is a reforestation project that aims to support smallholders restore agricultural lands. It combines plantations for timber with agroforestry. Prior to the project activities the land-use was degraded land, pasture, and annual crops such as cocoa and coffee

**Claimed SDGs**

**B+** GHG rating

**+4** SDG rating Medium-High impact

**High GHG**

**Performance**

<b>Additivity</b>	1/5
<b>Over-crediting</b>	2/5
<b>Overlapping claims</b>	4/5
<b>Permanence</b>	4/5

**SDG rating** Claimed SDGs Certificates

**+4** CCB

**+4** CCB

**+2** GS4GG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Calyx Global, Carbon Credit Rat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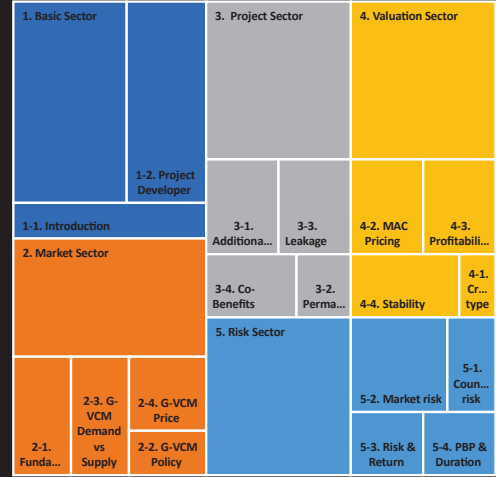
## NAMU EnR,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평가모형' 개발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NAMU EnR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등급 평가 모형(K-VCCRM, Korea Voluntary Carbon Credit Rating Model)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발적 탄소크레딧은 국가 NDC 달성, CORSIA 프로그램, RE100 캠페인,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번에 개발한 등급 평가모형은 탄소크레딧 실수요자 입장에서 △Basic Sector △Market Sector △Project Sector △Valuation Sector △Risk Sector 5대 대분류와 18개 소분류로 세분화해 입체적인 Multi Factor 등급 평가모형을 구축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크레딧 수급요인,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적 요인, 프로젝트 위험분석, 핵심탄소원칙(CCP) 준수 등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계량화해 적용했다. 등급 평가모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중치 결정, 점수분·등급 기준은 비선형 최적해, 요인분석, 계량통계 분석모형, 로그노멀 분포적용, 인버스 모형, Max-Min Threshold 등을 적용했다.

또 탄소크레딧 등급단계는 5분위를 기준으로 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총 10단계로 세분화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이번 등급 평가모형 개발로 그린워싱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탄소크레딧 공정가격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요 협력기관들과 평가모형 고도화·선진화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Source : 서울파이낸스,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 NICE피앤아이-NAMU EnR, '자발적 탄소크레딧 스코어링 평가모형' 개발 협력

NICE피앤아이와 NAMU EnR(나무 이엔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스코어링 평가 비즈니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31일 맺었다. 자발적탄소시장은 탄소 감축 의무가 없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크레딧(배출권)을 창출해 거래하는 민간 탄소배출권 시장을 말한다.

두 회사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크레딧에 대한 스코어링 평가모형 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 업무협약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을 대상으로 한 스코어링 평가업무 △E3(에너지·환경·경제) 정보 플랫폼 개발 및 다양한 투자 인덱스 개발 △장내·외 파생상품 개발 및 프라이싱 △포럼 개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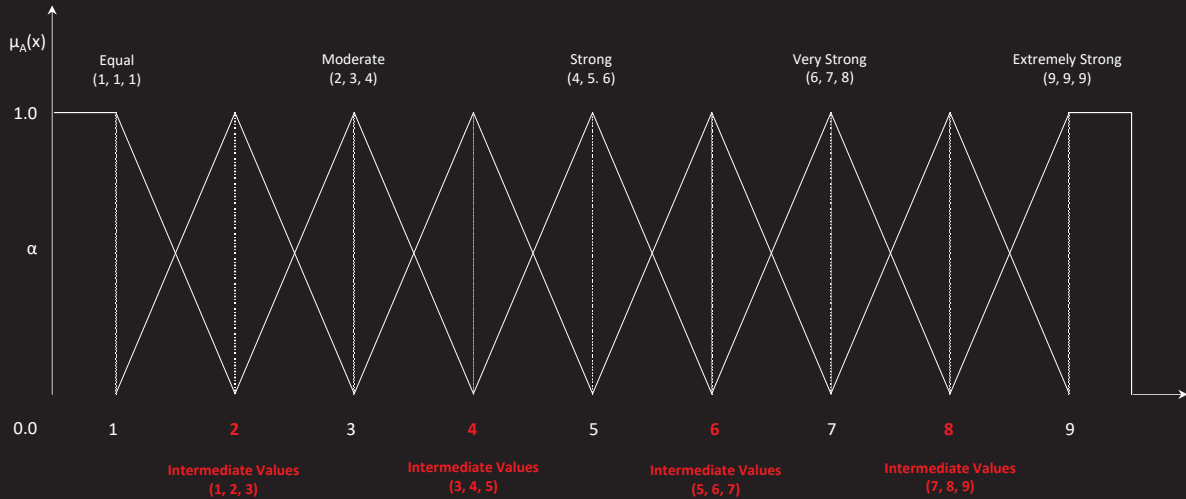


탄소배출권 리서치 회사인 NAMU EnR은 탄소배출권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이용, 시장전망 자료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분석을 추가했다.

영성필 NICE피앤아이 대표는 "탄소 크레딧 평가 모델 개발은 환경적 책임과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의 다양한 투자지표와 공정한 가치평가 모형 개발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파리협정 체결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최근들어 그린워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탄소원칙에 입각한 탄소크레딧의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며, 이번 NICE피앤아이와의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시장 선진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s://www.seou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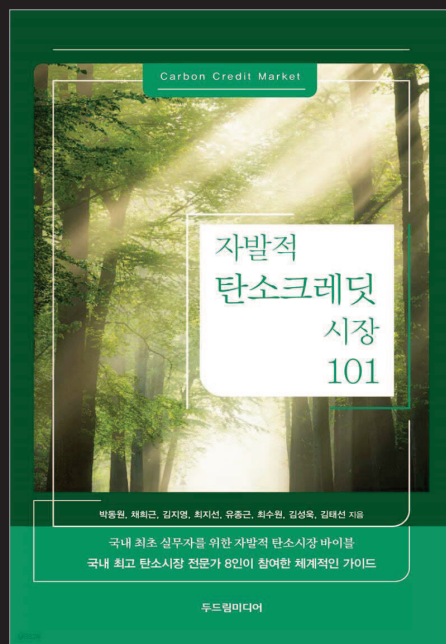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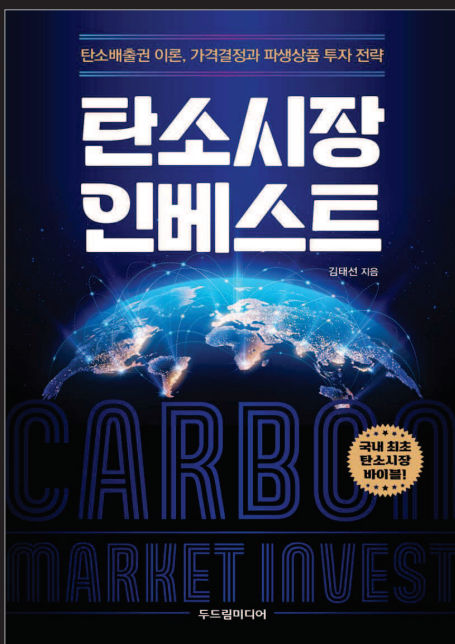
※ Source : 서울파이낸스,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레이팅 & 퍼지 모델



※ Source : NAMU EnR Financing Engineering & Research Center

< #별첨 > NAMU EnR - Bookstore





<http://www.namuenr.com>

NAMU EnR은 차별화된 시장분석으로  
최적의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탄소배출권시장  
KAU | KOC

  
신재생에너지시장  
REC | SMP

  
금융공학파생상품  
Futures + Swap

  
인공지능빅데이터  
Valuation Strategy



회사소개  
Investor Relations



KAU | KOC | REC | SMP | KAUF | KAUS | RECF | RECS

# ESG의무공시와 금융투자업계 대응방안

## (주요 이슈 및 예상변화 중심으로)

2024.11.13

1. ESG의무공시 관련 주요 이슈

2. 금융투자업계(증권사 위주) ESG의무공시 대응현황

3. ESG의무공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 1. ESG의무공시 관련 주요 이슈

### 보고기업의 범위와 적용 범위

□ 공시기준 상 보고 범위는 연결 재무제표 보고범위로 규정

- 보고기업의 수 방대 : 자회사, 종속회사, 해외법인, SPC 등 포함대상은 많으나 준비는 부족한 상황

### 법정공시 적용 시 처벌규정

□ 공시관련 법정공시로 갈 경우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규제 대상이 됨

- 도입 초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 및 업무 부담 등이 발생 가능

### 기후시나리오 분석

□ 기후 회복력 평가를 위해 시나리오 분석 수행 및 공시 요구

- NGFS, IPCC, IEA 등의 시나리오가 있으며, 각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 도입/사용

## 1. ESG의무공시 관련 주요 이슈(계속)

### ESG공시에 대한 R&R

□ ESG공시 담당 부문/부서 선정 이슈 존재. 공시항목 증가 시 마다 각 분야별 역할 정립 필요

- 예)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ESG부서에서 수행

### ESG공시 프로세스/플랫폼 구축

□ ESG공시를 위한 사내 프로세스 및 플랫폼 구축. 의무공시 개시 전 최소 1~1.5년 전부터 준비 필요

- 전사 차원의 ESG공시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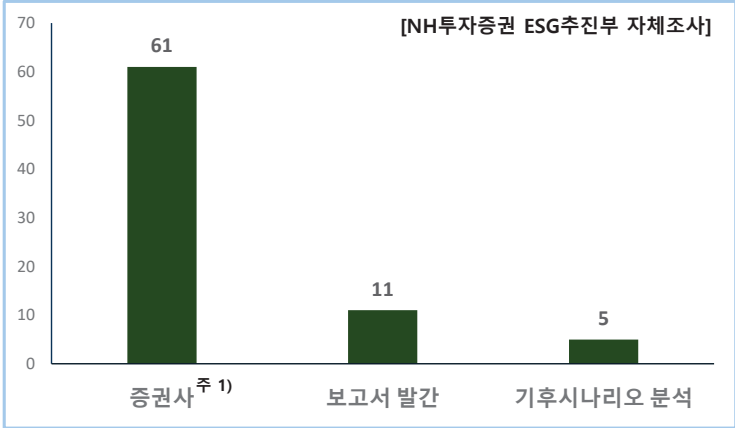
- 공시에 따른 경영전략의 방향성 변화 불가피



## 2. 금융투자업계의 ESG의무공시 대응현황

### 선도기업 중심으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공시 도입에 따른 대응 중

- ✓ 감독기관 및 공시기준에서 권고하는 「기후 시나리오 분석」의 **표준화된 방법론 부재**
  - 금융기관별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각社 별 다른 방식으로 진행**
  - 보고서 발간 11개 증권사 중 5개사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공개(45%)



※ 2024년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준

주1) 금융투자협회 등록 증권사 기준  
외국계 증권사 및 지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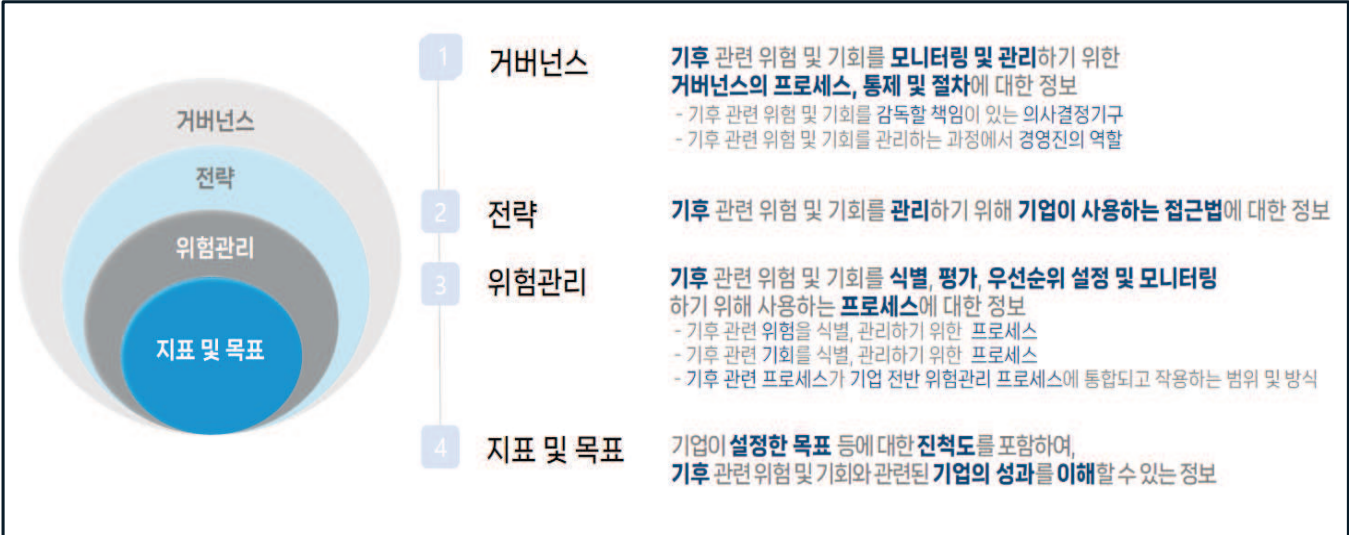
### 기타 ESG 공시관련 대비는 공시기준 확정 이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3. ESG의무공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 기후공시의 도입 이후 기업간 비교가능성 증대에 따른 차별화 발생 가능

- 기업별로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심 증대 및 ESG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계기
- 향후 항목별 기업간 비교가능성 증대로 인한 ESG가 경영전반으로 확대 가능성 ↑

### 기후공시 관련 핵심요소



[한국회계기준원 간담회 자료 중]

### 3. ESG의무공시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 □ ESG공시 내용에 대한 제 3자 인증 요구 강화

- 기존 지속가능보고서의 "온실가스 검증" 및 "보고서" 적합성 검증은 실시 중
- ESG공시의 경우 회계감사와 유사한 제 3자 검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

#### □ 재무제표와 동일 또는 유사시점 공시 요구 가능성 ↑

- ESG Data의 수집/관리/검증의 체계화가 시급하며, 반드시 시스템화 되어야 함
- 기존의 수기관리 방식 및 인원으로서는 대응 불가
- 사내 R&R정비 및 내부 프로세스, 감독체계까지 전사적 신규 프로세스 도입

Q & A